

#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 한국, 작년 찬성서 1년만에 다시 기권...논란 일 듯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의 기권 속에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3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투표에서 기권을 선택, 반기문 사무총장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실시된 지난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지 1년 만에 다시 기권으로 돌아섰다.

표결에 앞서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기로 했다"고 기권 배경을 설명했지만 지난해와 북한 인권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입장을 바꾼 데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유엔의 수장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총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찬성표를 던진 뒤 유엔대사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기

권에 따른 입장설명을 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 인권결의안이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며 문제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의안이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대북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과 2005년 유엔 총회 표결에서 내리 기권한 바 있다.

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최종결정되지만 위원회가 192개 회원국들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채택한 것이어서 본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차원의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올해 제3위원회가 채택한 대북인권결의안은 영 아랍세나 탈북자 처벌 등 증거가 부족한 내용이 빠

지기는 했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한다는 기본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및 6자회담의 진전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인권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난 총수 피해 때 북한 정부가 보여준 신속한 대응과 대외지원에 대한 열린 자세를 평가했으며 남북자 문제에 대해 '기존의 채널' 등을 통한 투명한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 것도 지난해와 다른 부분이다.

유엔본부=연합뉴스

### 靑 "한국 기권은 盧대통령 지시"

청와대는 21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표결에서 한국이 기권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평중인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저녁 늦게 송민순 외교부상 부장과 백종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엔 대북결의안 문제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결정했다"며 "이는 최근 남북관계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연합뉴스



### 아세안 정상들 한자리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상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국과 아세안국가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함께 참가한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왼쪽부터 부이손 부피완 라오스 총리, 압둘라 비디우 말레이시아 총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수라웃 출라는 태국총리, 테인세인 미얀마 총리.

연합뉴스

# 이-팔 '60년 분쟁' 종지부 찍나

## 27일 중동평화회의...2개국가 공존 해법찾기 주력

미국이 주도하는 27일 '중동평화회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60년 분쟁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평화회의는 두 당사국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중동의 주요국이 대거 참석,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과 국경선 확정, 예루살렘의 분할 관리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 문제 등을 놓고 사력을 건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손 맥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이번 회의는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암바스 팔레

스티안 자치정부 수반의 용기있는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훌륭한 지지가 될 것"이라며 성과에 강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올메르트 총리도 이날 팔레스타인과의 협상이 간단치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평화회의에서 두 민족국가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 내년 중 팔레스타인과의 명확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현재 중동평화를 둘러싼 쟁점은 초가단계 조치로서 이스라엘의 점령지 정착촌 건설 중단과 요르단강 서안지구 등 정착촌의 전면 철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격 및 테러행위의

종지 등이 꼽힌다. 또 가자지구와 골란고원의 반환 등 1967년 3차 중동전쟁 직전 국경선의 회복과 1948년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 등 아랍권의 요구가 최종단계 조치로 쟁점이 돼 있다.

이스라엘은 회의를 앞두고 기존 정착촌 철거와 새로운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약속하는 등 팔레스타인측과의 협의를 위한 움직임 보였다.

지난 6월 하마스 가자지구의 통제권을 장악한 뒤 하마스 권력다툼을 벌이는 암바스 수반을 돕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암바스 수반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재소자 340명을 풀어준 데 이어 이번 회의에 앞서 400여명을 추가 석방했다.

연합뉴스



구호품 받은 방글라데시 어린이.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시드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마을에서 한 어린이가 해군으로부터 받은 구호품 자루를 가져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 "힐러리 유력하지만 인간미는 글썽..."

#### AP-야후 뉴스 공동조사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이 가장 유력하지만 그녀와 함께 불링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없다"

미 AP통신과 야후 뉴스가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2천230명을 상대로 지난 2~12일 전화로 대선 후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민주당원들이 이러한 입장을 토로했다. 유력 대선주자로서의 경쟁력은 인정하

지만 인간적으로는 덜 끌린다는 속내이다.

21일 공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상원의원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에 대선 유력후보를 고르라는 질문에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으로 부터 각각 48%, 27%의 지지를 얻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양당에서 각각 2위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2%, 프레드 볼스 전 상원의원은 17%에 그쳐 큰 폭으로 뒤졌다.

워싱턴AP=연합뉴스

### "전세계 정보 고속도로, 2010년 포화"

전세계 '정보 고속도로'는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10년 포화 상태가 돼 광대역 이용자들이 예전의 다이얼업 모델에 다시 의존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가 20일 경고했다.

미국 조사 기관인 네미테스 리서치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정보 고속도로 업그레이드에 1천

370억달러 가량이 투자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 유류비 같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보 고속도로 '체중'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첨단 기술 출현에도 장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샌프란시스코dpa=연합뉴스

# 피부세포서 줄기세포 얻는다

## 미·일 연구진 배양 성공...윤리논쟁 불식 가능성 제시

미국과 일본의 연구팀이 각각 피부세포를 배양줄기세포 상태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난자와 배아 파괴에 따른 윤리논쟁 우려 없이 환자맞춤형 배양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 톨슨 교수팀과 일본 교토대학 야마나가 신야 교수팀은 20일 각각 과학저널 '사이언스'와 '셀'에 실린 논문에서 어른 피부세포를 배양줄

기세포처럼 전능성을 가진 세포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두 연구진이 모두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성체 피부세포만을 이용해 줄기세포를 만들도록 그동안 인간배양줄기세포 연구의 최대 약점으로 꼽혀온 난자와 배아 파괴에 따른 윤리논쟁을 피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이들의 기술이 세포치료제 개발로 이어져 환자 본인의 세포

를 이용해 세포치료제를 만들면 거부반응이 전혀 없는 환자맞춤형 또는 질환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8년 세계 최초로 인간배양 줄기세포를 만든 위스콘신-메디슨대학 제임스 톨슨 교수팀은 '사이언스'에서 복제기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섬유모세포에 4가지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배양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전액국비수강생모집

#### 부동산실무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중개사	5주	11월 20일
	주택관리사	5주	11월 20일

※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 컴퓨터

구분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화기초 1.2	5주	매월초

※ 교육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교육수료후 현금 ■ 일반인 및 대학생 수강료 특별할인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철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앞으로 세무직 많은 채용 예정!! =

## 7·9급 공무원

### 행정+공안+기술직

== 전국 유일의 정통 권위 강사진 총출강!! ==

개강: 11월 15일 주·야(총합)반 모집 (원정수준)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al.co.kr ☎ 222-4560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 Final Course 개강

12월 3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런? | 학년 대비반 12월 17일 개강

김영면입·PMS학원 (광주동부경철서) ☎ 227-8088

##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소리없이 다가오는 훈훈함~ 원적외선 플레이트 웰빙히터! 전기 히터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로터리히터와 열풍기의 장점을 하나로~ 원적외선 프리미엄 웰빙히터! 화력 조절과 원거리 입체 난방까지

모델명	면적
AH-71S(10~17㎡)	
AH-730(20~23㎡)	
AH-250(50~83㎡)	
AH-280(33~75㎡)	
AH-790(73~79㎡)	
AH-100	33~66㎡
AH-330	60~99㎡
AH-630F	118~149㎡
AH-830	132~165㎡
AH-830F	165~198㎡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냄새, 소음 저감 장치 채택

난방비 절약! 써보신 분이 권해드립니다.

실내용: 사무실, 학교, 학원, 호텔, 은행, 병원, 레스토랑, 휴게소, 도서관, 연수원, 미용실, 교회, 주유소 등

실외용: 골프장, 놀이동산, 카센터, 공장, 야외행사장, 피크닉장, 공사현장, 테니스 등 개방된 장소

무등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동 840-14(갯동육교 옆) ☎(062)371-7095, 011-601-7701